

崔貞熙 小說에 나타난 ‘救援’의 양상

- 『凶家』, 『靜寂記』를 중심으로 -

황 수 남*

차 례

- | | |
|----------------------|--------------|
| 1. 序論 | 4. ‘집’의 서사공간 |
| 2. 코라(Chora) 공간의 어머니 | 5. 結論 |
| 3. 아니무스(Animus)의 고통 | |

1. 序論

한국 현대 문학사에 있어서 여성 문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전개되나, 여성 문학이 여성의 한계와 고통의 문제를 얼마나 깊게 반영하고 여성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제시했는가에 대한 탐색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성 문학 자체마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문학이 인간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여성 경험의 현상들을 인식하는 경험자 자신의 특수한 영역으로 취급하여 인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문제는 다소 돌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성의 대자개념으로서의, 특별한 신분으로서의 여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성성에 대해 현대 여성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크리스테바는 순진한 낭만주의로 보고 있다. 그녀는 성별 사이의 차이는 메울 수 없는 심연도 아니고 두 종족간의 전쟁도 아니며, 남성은 여성 속에서, 여성은 남성 속에서 발전되므로, 여성성은 오히려 휴머니즘의 이면¹⁾이라고 한다.

최정희 소설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고통받는 현상들을 꾸밈없이 형상화함으로써 여성 심층 세계를 구조화하고 자아와 타자의 세계를 재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관념적 思辨이나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지 않고 전신으로 온 힘을 다해 소설을 쓰기 때문에 인간성이 능동 질게 표현되어 있으며 슬직과 인정에 넘치는 작품세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독특한 최정희 문학의 순수성²⁾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 순수성은 지배 당론 뒤에서 침묵하는 언어 내적인 언술을 읽어내는 작업과정을 거침으로써 문학적 가치를 더하게 된다.

최정희는 1931년 <정당한 스파이>(『삼천리』3권)를 시작으로 15편의 습작기를 거쳐³⁾ 1935년에 <凶家>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전개한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여성 인물들의 의식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초기 소설들은 1937년 4월 <凶家>(『조광』)에 이어 1938년 1월 <靜寂記>(『삼천리 문학』), 1939년 9월에 <地脈>(『문장』), 1940년 4월에 <人脈>(『문장』), 그리고 1941년 1월에 <天脈>(『삼천리』)에 연결되면서, 고난의 역사를 누리는 여성들의 삶을 제시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작가다. 그는 맹원도 아니면서 1934년 대 '프로레타리아 예술 동맹'의 강제 해산 및 일제 檢束에 연루되어 무고하게 옥고를 치루었고 그 다음 해 석방되면서 조선일보 출판부에 입사하여 단편 <凶家> <地脈> 등을 발표하여 등단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석방된 후에도 당국(일본)의 감시와 억압을 받아가며 현실 생활에서 푸대접을 받는다. 결국 그는 직장 생활도 버리고 고향도 아닌 서울 근교의 덕소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1) 崔賢茂 「기호학자 켈리아 크리스테바」, 『프랑스 현대 비평의 이해』, 김희영 편저, 민음사, 1984, p.275.

2) 조연현, 「최정희 작품 해설」, 『한국대표문학전집』, 『최정희, 박희성』, 삼중당, 1971, p.817-819 참고.

3) 1931년부터 전주 형무소에 수감됨으로써 생긴 공백기인 1934년 12월 이전까지 중편 1편(신문 연재), 단편 12편, 콩트 1편, 장편의 연작 1회, 모두 15편이다. <정당한 스파이> 한 편을 쓴 1931년을 제외한 1932, 33, 34년에는 일년에 3편 내지 4편씩 집필했다.

양계와 농사를 지으며 작품활동을 한다.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문학적 열정으로 도도히 헤쳐나간 작가로 문단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제1기 여류문사로 일컬어지는⁴⁾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등 문단 최초의 여성 문인들과는 달리,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등단한 제2기의 모운숙, 노천명,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최정희, 이선희, 김달봉 등은 1930년대의 우리 문단을 문학적 페미니즘의 시기⁵⁾로 꽃피운다. 그러나 긴 세월을 두고 문학적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여성 작가는 최정희가 유일하다. 식민지 치하의 어두웠던 현실과 해방 공간의 격동기, 6.25 전쟁에서의 참담한 민족적 비극, 4.19 혁명 등을 몸소 체험한 그는 그 상황마다 빚어지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소설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여성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는 일제말기에서 4.19의 격동을 거치는 동안 젊은이의 사랑과 민족과 역사적 이데올로기와 죽음을 다룬 <人間事>로 1964년 제1회 여류문학상을 받았으며, 1970년대 이후⁶⁾부터 1980년대 작품은 원숙한 인생 경지를 다루었다.⁷⁾

최정희 문학의 '여성답다'는 평가는 그의 작품이 '여성성 상실' 혹은 '여성성 기피'⁸⁾ 대신 한국 여성 전통 문학의 고백체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남녀 관계와 가정 생활, 사회 문제를 여성 내면 의식의 진솔한 표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우려하는 지배 담론에 의해 무력해지고 훼손된 여성의 면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모도 있음을 인식하고 여성문학의 방향을 주체로서의 인간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정체성을 살피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여성 이미지 중심의 페미니즘 비평은 새로운 시각으로 여성 텍스트의 '다시 보기' 입장으로 페미니즘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문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4) 김운식, 「인형 의식의 파멸」,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4, p.230.

5) 이재선, 『한국현대 소설사』, 흥성사, 1979, p.429

6) 1970년대 이후에는 단편 <바다> 『일간문학』, 1970년 4월, 장편 <205호 병실> 『現代文學』, 1970년 5월, 단편<탑돌이> 『現代文學』 12월호, <산> 『文學思想』, 1976년 1월, <花謝記> 『現代文學』, 1980년 8월 등을 발표했다.

7) 논자는 지상에 발표된 마지막 작품 이후 1990년 작고할 때까지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구명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고, 그의 딸인 소설가 김채연에게 직접 문의(2000.12.8)하였으나 그 이후 완성된 작품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8) 김문집, 『비평문학』, 청색지사, 1938, p. 359.

최정희 소설은 콩트 8편, 단편소설 50편, 중편 5편, 장편 6편, 창작집 5편, 장편 소설집 4권이 있으며⁹⁾, 이를 시기적으로 분류하면 습작기, 초기, 중기, 후기 작품으로 나눈다.¹⁰⁾

본고는, 최정희 소설에 내재한 여성 고유의 특성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페미니즘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여성의 불행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여 주체로서의 인간을 갈구한 그의 초기 작품 <靜寂記>, <凶家>의 텍스트 내적 묘상과 이미지를 통해 가혹한 현실에 처한 여성이 어떤 양상을 통해 구원을 얻는가를 ‘코라 공간의 어머니’, ‘아니무스의 고독’, ‘집의 서사구조’로 나누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코라(Chora) 공간의 어머니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¹¹⁾는 언어의 토대를 전오이디푸스 단계의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찾음으로써 오이디푸스 단계의 아버지에 주목하는

- 9) 정영자, 『수련어문논집 13』, 부산여대, 1986, p.4에서는 최정희에게 직접 문의(1986, 1,24)하여 최정희 작품을 최종적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는 콩트 5편, 단편소설 26편, 중편소설 3편, 장편소설 6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습작기작품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논자는 습작기 작품을 포함하여 재정리하였다.
- 10) 조연현은 최정희 소설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첫째는 <凶家>, <靜寂記>, <地脈>, <人脈>, <天脈>을 중심으로 한 三脈 시대 작품으로 8.15 해방 이전의 작품이요, 둘째는 <占禮>, <우물치는 풍경>, <풍류 잡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8.15 해방이후의 작품이요, 셋째는 <人間事>를 중심으로 한 6.25 사변 이후부터의 작품으로 분류했다. 조연현, 『한국 현대 작가론』, 어문각, 1971.
- 11)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1941년 불가리아에서, 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소피아 문대 대학에서 수학한 후, 프랑스-불가리아 양국간의 문화조약에 따라 박사학위를 위한 장학금을 받아 1965년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 그녀의 기호학 이론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문학 사회학의 뤼시앵 골드만, 기호학 및 구조주의자인 롤랑 바르트, 심리분석의 자크 라캉과의 만남이었다. 그녀는 같은 불가리아 태생인 구조 시학자 츠베탕 토도로프를 통해 뤼시앵 골드만의 세미나에 안내되어 골드만의 지도하에 『소설적 진술의 기원』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롤랑 바르트는 그녀의 형식주의적 접근에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에서 벗어나려 했다. 크리스테바의 논의는 초기 어머니와 아이 관계에 관한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연구¹²⁾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녀는 전오이디푸스 단계를 기호계라하고 이 단계에서 의미화 과정을 구성하게 될 최초의 자취들이 확립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리스테바는 라캉의 상상계와 상징계의 개념, 언어의 분열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페미니스트 언어 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기호계'로 보고 라캉의 이론에서 상징계와 남성의 역할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억압당했던 어머니 중심의 前 오이디푸스 단계의 기호적 언어가 사회적 규범과 전통에 의거한 상징적 언어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남부의 본질적인 이원론에서 탈피하여 성별과 관계없는 기호적 언어를 통해 상징적 언어라는 보편적 구조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때 기호적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플라톤의 용어를 빌어 '코라'라고 명명하면서 코라(Chora)¹³⁾는 이름지을 수 없는 것, 진짜 같은 것, 아버지를 모르는 무정형의 것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나 논리적인 세계와 대립하는 母子 융합 상태의 양의적 공간을 의미한다. 때문에 코라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호계가 '어머니의 몸'과 연결된다면 상징계는 '아버지의 법'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언어 습득을 통해 코라 공간에서 상징계 공간으로 이행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복종하게 되고 그것을 내재화하게 된다고 볼 때 논리적인 것과 반대되는 웃음소리나 자장가와 같은 흥얼거림이 코라 공간¹⁴⁾이다.

-
- 12) 멜라니 클라인, 『정신분석학 시론 *de psychanalyse.*, Paris, 1967; M. Klein, P. Heimann, S. Isaacs, J.Piviere, 정신분석의 발달 *Developpements de la psychanaly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66. 이는 크리스테바,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유복렬 譯, 도서출판 푸른숲, 1998, p.181에서 인용함.
- 13) 줄리아 크리스테바, 『사랑의 정신 분석』, 『역자 해설』, 김인환 譯, 민음사, 1999. P.149. 크리스테바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세미오틱은 음절 이전 상태의 언어라고 설명하고, 철학으로는 母子 융합 상태 내지는 모성적 성격을 지닌 존재의 원초적 수용기인 코라(Chora)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 코라를 서양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동양적 입장에서 본다면 음양으로 분절되기 이전의 태극 상태의 코라에 비교될 수 있다.
- 14) 김비현,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국학자료원, 1992. 참조

- 아이가 있을 때 어느 저녁이었다. 아이는 늘 하듯이 엄마 오는 것을 앵두밭 그늘에서 찾아내자 곧 달려들며 좋아하다가 엄마의 발을 꼭 밟았던 것이다. 아이는 엄마 발 밟은 것이 잘못되어서 어색한 얼굴을 지었다. 그럴 때 나는 아이의 그 얼굴에서 문득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름이 죽 끼치어 아이를 두 세 번 뺨을 후려갈겼다. 정말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러했던 것이다. 아이는 뺨을 두 손으로 부둥켜 잡고 바로로 떨어졌다. 그 날 저녁 나는 아이 잠든 옆에서 늦게까지 '자장가'를 부르며 죄 없이 맞은 아이의 불우한 운명을 생각하고 오-래 울었다. 아내는 그 뒤 아무리 좋아도 내 발 가까이 와서 함부로 뛰고 기뻐한 일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슬퍼서 '자장가'란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이다.

부엌에서 저녁 짓는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들려왔다. 분쌍한 어머니, 가엾은 어머니! 나는 눈물이 날려고 했다. 아이 생각보다도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오늘까지 어머니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던 것이다. 정말 어머니는 슬픈 곡예사로 세상을 살아오셨다. 아버지와 만나서 오 년도 못되어 아버지는 첩을 얻고 백 리도 넘는 땅에 떠나 이십여 년을 살 때 어머니는 어느 하루를 빼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주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아직도 어머니가 원하는 훌륭한 자식은커녕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효한 자식들.

〈靜寂記〉¹⁵⁾에서

최정희의 자서전적인 소설인 〈靜寂記〉는, 아이를 시택에 보내고 못내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女性 家長인 '나'의 모습과 평생 호강 한 번 못하고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애절하게 나타낸다. 아이에게서 미운 남편의 얼굴을 발견하고 뺨을 때린 '나'는 완결된 구조인 지배 권력에 대한 반항이다. 미운 남편은 바람을 피워 첩살이를 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법'과 연결되는 상징적 공간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장가를 부르는 엄마인 '나'는 현실적인 인내를 감수하는 '나'의 어머니와 함께 코라 공간이다. 자신의 내부에 질서와 분열을 하나의 과정으로 하여 이를 이론화하는 담론은 어떤 성질이 우세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호계의 침입을 최대한 허용하는 언어를 크리스테바는 '시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는 리듬감, 소리 패턴의 강조, 구문의 와해, 이질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아늑한 자궁의 물결 소리를 들려주는 자장가는 인식 공간 이전

15) 최정희, 〈靜寂記〉, 『삼천리 문학』, 1938,1, pp.57-58.

의 원초적 공간이다. 음양이 분절되지 않은 태극 이전의 공간에 ‘어머니’는 존재한다. 스토리는 이 코라 공간에서 상징계 공간으로 자연스레 이행됨으로써 의미 영역이 확대된다.

나와 어머니의 운명은 누가 이렇게 맨드러 놓았는지 몰라. 여자의 운명이란 태초부터 이렇게 고달프기만 했을까- 아니 몇 십만 년을 두고도 여자는 이렇게 늘 슬피기만 할건가.

〈靜寂記〉16)에서

그러나 나의 육체적 경험은 어머니의 육체와의 연속체이므로 이런 육체적 경험들이 점진적으로 질서나 형태를 이루면서 의미화 과정, 의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전언어적 기호계에서 아이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의미의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나와 어머니의 고달픈 운명이 아이의 내부에 내재하는 육체적 감각이나 리비도 충돌들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자연스레 닮아간다는 것이다. 리드미컬한 기호계의 자취들이 운명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날 밤 내가 긴 머리채를 감아쥐고 미친 안주인이란 그 여자에게 실컷 얻어맞는 꿈을 꾸는 것을 생각하니 완전히 힘을 탁 잃고 말아버렸다…… 땀이 물 피붓듯 하고 머리가 분당이 같았다. 나는 꿈작도 못하고 그저 죽을 것만 같았다. 몇 시나 되었을까? 어머니를 불러볼까? 어머니를 불러 불래도 안방 건넌방 사이의 문이 모두 두꺼운 분합문이라 잘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하나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또 한번 크게 불러 보았다. 또 대답이 없고 내가 ‘어머니!’ 라고 부른 내 소리의 떨리는 여음만이 조용한 밤 속에 흩어질 뿐이었다. ……아아 무섭다. 어머니를 부를 힘도 없다.

〈凶家〉 17)에서

이는 코라에 의해 표상되는 세미오틱이 의식의 심층 속에 들어있는 욕구,¹⁸⁾ 불만, 나르시시즘 등의 심적 양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세미오틱은 존재의 본질

16) 최정희, 〈靜寂記〉, 앞의 책, p.56.

17) 최정희, 「凶家」,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4, pp.441-442.

18) 크리스테바, 『사랑의 정신 분석』, 앞의 책, p.29. 욕구는 의미 생성 과정에서 주체에게 작용하는 무의식적 요소로서 욕구와 욕구의 분절이 세미오틱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아이 꿈을 어머니 쪽으로 향하게 하고 어머니와 신체 접촉을 통하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기부터 욕구는 발아된다고 한다.

을 포출하는 담론으로서 피분석자의 환몽을 담는다. 라캉의 상징계에 속하는 생볼릭 191은 의식의 산물로서 통사론적 질서에 따라 기호간의 결합을 형성하는 데 비해 세미오틱은 前 언어적 내지 超 언어적 언어로 주체나 타자의 구별이나 유일자와 아버지의 이름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남편이 죽고 시형이 재산을 가로채자 미쳐버린 주인 집 여자의 광기는 완벽한 문화 코드의 거부다. 그 여자가 '나'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는 꿈은 논리 기준의 가치에서 내동맹이쳐진 불만과 공포가 폭발해 버린 것이며 죽음이란 현실적 공포가 환원된 것이다. 죽음의 재현은 무엇인가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충동들이 충동하고 파기되는 데서부터 어떤 힘을 포착할 수 있다. 환몽은 무의식과 의식이 만들어내는 가상적 각본이며 그것은 주체를 가두어 놓는 창살없는 감옥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 환몽과 그 욕망의 좌절이 원인이자 결과다.²⁰⁾ 그러나 그러한 환몽을 해체시키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은 파괴적 환몽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의 환상을 열어주는 강력하고 신비한 힘을 요구한다. 그 신비한 힘의 존재가 바로 '어머니'다. '나'는 온 몸에 땀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는데, 이 '어머니'는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비한 존재로서의 코라 공간이다. 이는 욕구의 심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강렬한 갈증의 소산이다. 이 욕구는 텍스트에 잠재된 코라에서 생겨나, 그 흐름이 텍스트의 안팎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인 체제가 그 내부적 계층 사이의 관계에서 유동성 내지 변동 가능성을 보여 줄 때 그 흐름이 더욱 더 강렬하고 역동적²¹⁾이 된다.

19) 크리스테바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을 언어적인 문체와 결부시킨 것으로 소통과 욕구 및 일차 과정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글쓰기에서 표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생볼릭이고 생볼릭에 내재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고 그 조정을 위협하는 것이 세미오틱이라는 것이다. 세미오틱은 생볼릭으로 하여금 변하지 않을 수 없게끔 계속 작용하는 그 무엇이므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담론이나 이론적 서술과 관계될 때는 세미오틱의 작용이 최소화되고 생볼릭의 기능은 최대화된다. 반대로 연극 대사, 시에서는 생볼릭의 기능은 최소화되고 세미오틱의 작용은 최대화된다.

20) 크리스테바, 『사랑의 정신분석』, 앞의 책, pp.149-150

21) 김인환, 『술리아 크리스테바의 담론 연구 -관조적 담론과 텍스트- 실천적 담론을

음이 여성은 헌신적이며 경외감을 일으키는 대상이며 풍요와 결실을 대표하는 물질 및 장소와 관련이 있다²²⁾고 어머니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이는 이성을 초월한 지혜와 도우려는 본능이나 충동, 자비롭고 아끼고 보존하는 풍성함이 들어있는²³⁾ 모성을 말한다. 이같이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코라 공간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머니에 닿기에는 분함문이 너무나 두껍다. 분함문은 구원을 방해하는 벽이다. 이 두꺼운 현실의 벽으로 인해 주름잡힌 어머니의 얼굴은 아련하게 먼 발치에서 ‘나’의 마음을 저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나’를 치료하기 위해 어머니가 끄이는 약탕관에서 덮은 종이 누렇게 부풀어오르고 김이 천장에 잘 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풍길 때, 비로소 ‘나’는 코라 세미오틱적 구원을 받는다.

3. 아니무스(Animus)의 고독

쉴르는 ‘强者란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고 하고, 입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란 고독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듯이 私生兒를 가지고 홀어머지를 모신 여성 가장으로서 강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최정희로선 고독을 숙명처럼 안고 다녀야 했다. 최정희 소설의 여주인공은 대부분이 미망인이나 사생아를 가진 女性 家長들이다. 이들은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도 못한 불행하고 고독한 여인들이다. 이들은 성숙한 여인으로 탈바꿈하는 祭儀式으로 현실의 시련을 겪게 된다. 생존을 위한 이 시련은 ‘여성 속의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로의 입문(Initiation)과정이다.

나와 내 어머니의 운명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 여자의 운명이란 태초부터 이렇게 고달프기만 했을까- 아니 이 뒤로 몇 십 만년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vol 29, No.1, 1995 p.627. 이것은 1994년 2월 8일에 있었던 크리스테마 교수와 김인환 교수와의 면담에서 강조되었다고 한다.

22) C.G. Jung, *Four Archetypes*, Princeton University, p.15.

23) 田惠子, 「한국 여류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분석」, 『아세아 여성 연구』 21집, 숙대, 1982. P.231-232.

두고도 여자는 늘 이렇게 슬프기만 할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자에게 자궁이란 달갑지 않은 주머니 한 개가 더 달린 까닭이 아닐까…… 그렇지만 자궁 없는 여자는 더 불행한 것도 같다.

〈靜寂記〉²⁴⁾에서

이처럼 여성은 자궁이라는 주머니가 한 개 더 달린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숙명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최정희는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인 면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달갑지 않은 자궁을 가짐으로서 상실의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창조의 출구가 되어 강력한 아니무스를 창조한다.

김광섭이 “왜 혼자 사시나요?” 하고 질문했을 때, 최정희는 ‘어린애가 엄마 찾는 소리가 놀상 위에 떠나질 않아서 …’ 하는 표정을 보이니 그때 누구나 조금 더 외롭고 슬픈 얘기를 하면 눈물이 가슴에 떨어질 것 같았다²⁵⁾고 술회하듯이 그의 애잔한 모성과 고통은 상실의 공간을 넘어서서 창조적 힘의 원천으로 변환한다.

정동집에서 우리 집 식구가 끝끝내 집달리와 변호사와 순사에게 그 집에 살던 백여 명의 식구와 함께 쫓기던 날, 비대발팔 없이 마당에 내동댕이쳐 내던지운 새간 등숙을 걸어 신고 자하문 밖 아는 이의 친구집으로 건넌방을 빌려 임시로 옮기게 된 지도 한 달이 훨씬 넘는 때였으니까…… 나는 어머니가 내가 몸살인 줄 알고 약을 지으다가 달이시기까지 나는 조용한 아랫목에서 병과 약과 꿈과 집과 돈과 우리집 생활을 생각하고 또 주름 잡힌 어머니의 얼굴도 바라보았다.

〈凶家〉²⁶⁾에서

“언제 전당포를 찾아보겠는지”

어머니의 탄식 소리에 국수물도 넘어가지 않아서 나는 상을 밀어놓고 누런 전등불만 한참 쳐다보고 앉았다가 옆에 놓인 신문 광고를 뒤적거렸다. …… 내게 무엇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지위가 명예가 있느냐? 젊음이 있느냐? 그런데 누가 내게 돈을 준다드냐, 누가 내게 산을 행한다드냐. ……죽음이 나를 찾아드는 날까지 이 수난을 받으리라 마음먹었다. 그것이 내 할 일인 것 같기도 했다. 하나 마음은 넓은 법원에 혼자선 것 보다 더 헛헛하고 고독하고 적막했다. 사방을 휘돌아봐도 아무 것도 없었다.

『靜寂記』²⁷⁾에서

24) 최정희, 〈靜寂記〉, 앞의 책, pp.56-57.

25) 김광섭, 「인간 최정희 여사」, 『조광』, 1939.3, p142.

26) 최정희, 〈凶家〉, 앞의 책, pp.437. 444.

<凶家>에서 '나'는 내동댕이쳐진 지저분한 세상을 이끌고 체면도 자존심도 버린 생존의 처절함과 고독을 뼈저리게 느낀다. 아무리 아는 이의 살뜰한 친구라고 하지만 안면조차 없으며 더군다나 그의 부인이 여학교의 동창생인 줄도 모르고 저너 늦게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걸어 신고 어머니와 아이와 동생들을 데리고 자하문턱 마루를 고생스레 넘어 갔을 때의 부끄럽고 울고 싶은 심정과 <靜寂記>에서 돈도 지위도 명예도 젊음도 없는 家長으로서 헛헛한 고독은 오히려 질퍽한 현실의 땅을 다지는 매체가 된다. 그러나 그녀는 이 냉혹한 현실에서도 보드레르를 읽고 이 세상의 모순과 습관과 풍속을 미워하면서도 자기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수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진다. 죽음이 찾아드는 날까지 고통과 수난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는 체념 대신 강력한 아니무스의 힘이다. <凶家>에서 악몽에 시달리며 죽고 말겠다는 생각을 할 때, 눈을 부릅뜨고 입을 썰룩거리며 '탈바가지'가 다가선다. 집을 정돈한 후 그것을 걸고 좋아했던 탈바가지는 이제 무서운 모습으로 아니무스의 힘을 짓누른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밑에 집어넣고 그것도 무서워 안방으로 가져감으로써 부조화의 세계를 탈피하고 죽음과 체념을 극복한다. 이 假面의 징표는 그녀와 이질적인 현실의 제도적 장치로 그녀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요소다. 최정희는 '홍가', '가면'이라는 상징적 증표를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내적 표상을 다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934년 발경 전주사건이라고 하는 카프 2차 검거에 유일하게 여성 작가로 투옥, 옥살이를 한 최정희는 소위 카프사건이라고 하고 新建設事件이라고 하는 데에 어쩌서 자신이 걸려들어서 형무소에 8개월간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형무소라면 세상의 지옥으로 알지만 정작 그때의 그에게는 형무소가 안식처였다고 술회한다. 그는 책을 읽을 수 있고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으며 발톱이 얼어서 빠지는 일이 대수롭지 않았으며 비로소 '문학'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문학은 그를 위해서 생긴 것이요 그는 문학을 하지 않으면 救援의 길이 없을 것 같았다고 토로한다.²⁷⁾

이 사건으로 최정희는 비로소 강렬한 아니무스의 고독을 감수하며 구원을 모

27) 최정희, <靜寂記>, 앞의 책, p.59.

28) 최정희, 『나의 文學 生活 自敘』, 『백민』, 1943.3. p.47

색한다. 물론 감옥 가기 전 그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는 감옥살이에서의 고독을 오히려 내적 충만감으로 전환시키는 여유를 보인다.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원동력인 고독은 아니무스를 발현하는 힘을 창출했으며, 그 아니무스의 힘은 문학을 잉태시켰으며, 문학은 그를 구원했다. 그리하여 獄에서 나와서 처음 쓴 것이 <홍가>인데 그는 이 작품을 자신의 처녀작이라 하며 그 이전의 작품은 찾아다니면서 버렸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외롭고 슬프고 약한 여자들을 써왔다고 말한다. 참정권 한번 부르짖는 일도, 남녀 평등을 한번 말해보는 일도 못하는 지질이 못한 여자들이지만 그의 여자들은 세상의 어느 여자보다도 '자랑'이 무엇이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총명한 여자들²⁹⁾ 이라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체구에서 남성적 쾌기가 나오는 최정희 문학이 하나의 의문이면서 병환이 아닌가 걱정되며, 맨스필드의 귀여운 짐, 울프의 높은 향기는 남성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순란한 감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씨에게 향하여도 그러한 것을 바라고 싶다."³⁰⁾고 한 김기림의 말은 최정희 문학의 정수가 강렬한 아니무스의 힘에서 발현된 것임을 말한다. 이것은 호느끼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여성에서 탈피하여 뼈를 깎는 생존을 위해 주체적인 여성으로 비약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4. '집'의 서사 공간

공간은-특히 집은 요나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의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³¹⁾ 요나 콤플렉스란 우리가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휩싸이듯이 들어 있을 때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은 집, 서랍, 장롱, 새 집, 조개껍질, 구석 등 내밀할 수 있는 장소들이다. 상징 언어의 특징적 성격은 구체화의 과정과 그 사용에서 지향하는 바가 다의적으로 실재의 여러 수준을 결

29) 최정희, 「나의 文學 生活 自敘」, 앞의 책, p.47.

30) 김기림, 「女流文人片感寸評」 『新家庭』, 1934.2. P.37.

31) G. Bachlard, 『空間의 詩學』, 鄭光秀 譯, 文藝中央, 1980 가을, p.338.

합함으로써 독특한 의미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상징적 의미세계로 들어감을 뜻하며, 의식을 통해 의미를 구체화 혹은 현실화하는 과정이다.³²⁾ 집은 우주의 재현이며, 방은 집의 일부분으로 우주를 상징한다. 하나의 정방형으로 조직된 방은 세계의 모형이며 그것은 네 개의 지평으로 나뉘는 것에 대응한다.³³⁾

병이 낫으면 마음에 드는 종으로 방을 되비하고 소설을 쓰고 책을 읽자.
먹을 것만 있다면 억 만년을 가만히 방 속에만 들어앉아 살아도 싫을 것 같지 않구나.

<靜寂記>³⁴⁾에서

이와 같이 최정희 소설에 나오는 '집'과 '방'의 공간은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는 공간이다. 이오니아 儀式的 소설 무대는 안방이다. 안방은 여자가 생활하는 곳이다. 일상적 생활의 장소이기도 한 안방을 중심으로 부엌과 마당으로 구획지어진 조그마한 생활의 터전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동시에 우주 공간이다. 거기에는 요란스런 구호나 거창한 스케일 같은 것은 없다. 혜원의 풍속도처럼 살아있는 인간들의 모습이-그들의 운명과 갈등과 회로애락이 차근히 다듬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³⁵⁾ 집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몸을 녹이는 再生 空間이요, 아이가 문지방 너머로 애타게 어머니를 기다리는 자궁의 공간이다. 억 만년을 살아도 싫을 것 같지 않은 이 안식의 공간은 영원을 향한 공간이다. 그러나 그 영원한 안식의 공간은 '나'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다.

'휴가' 쓴 것이 잘못되었다고 집 주인이 와서 떠나라고 했다. 한 사람이 아
니고 주인 양주와 일꾼까지 와서 옥박지르고 야단법석이었다. 악의 없이 한
일이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심히 미안하다고 말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집 주인네들이 아침에 또 와서 열론 떠나지 않는다고 꽃밭에 꽃을 바구 뽑아
던졌다. 나는 다른 꽃보다 오랑캐가 시든 것이 더 가련하게 여겨진다.

<靜寂記>³⁶⁾에서

32) D.M. Rasmussen, 『상징과 해석』, 장석만 역, 서광사, 1991, p.39.

33) Yi-Fu Tunam, 『공간과 장소』, 정영철 역, 태림문화사, 1995, p.124.

34) 최정희, <靜寂記>, 앞의 책, p.63.

35) 강인숙, 『한국 현대 여류 작가론』, 『현대문학』, 1968.1. p.356.

36) 최정희, <靜寂記>, 앞의 책, p.64.

<홍가>는 상실과 부조화와 고통의 현장으로 평온함과 안일과 영원을 회구하는 갈증의 소산이다. 사회 제도의 칼날은 이 갈증들을 비참하게 난도질한다.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안주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소외는 가속화된다. 그러나 가학적 제도 앞에서 피학적 희생을 목격하면서도 시든 오랑캐꽃을 가련하게 여기는 여유있는 마음은 바로 우주 공간의 마음이다. 그 꽃은 거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순수하고 소박하기만 하는 주인공의 대체물이다. 시든 오랑캐꽃을 어루만지는 마음은 비참한 자신을 가다듬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정원은 자아 가치를 충족시키는 충만한 공간이며, 정원의 훼손은 자아 상실의 어두운 공간이다. 그러나 상실의 공간을 충만한 공간으로 이행시키는 것은 열려있는 우주 공간이며, 해탈의 공간이 된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집은 '凶家'라고 했다.

그것을 전연 모르고 나는 아침 일찍이 비가 몹시 오는데 우산을 받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앞을 서서 휘적휘적 잘 걷는 늙은 집 주름의 손을 잡고 가까스로 밤사이에 불은 개천을 건너가서 그 집을 둘러보았다. 집은 대문에 쇠가 잠겨 있었다. 빈집이라 계약만 잘 되면 곧 옮길 수 있을 것이 기뻐서 나는 집주름이 집주인을 데리러 비오는 산모퉁이를 돌아간 뒤에 대문밖에 우산을 받은 채 우두커니 섰다가 집 울타리 밖을 몇 번 휘이 둘러보았다.

그러나 닭 울음이 그치고 성문같이 두껍게 닫혔으리라고 생각되던 안방 봉합문이 흰히 열려 있었다. 나는 또 한 미닫이도 열었다. 다음으로 서쪽 창을 힘들여 꼭 냅다 밀었다. 달빛도 감나무 그림자도 다 없는 그 문이었으나 그래도 나는 꿈 일을 생각하고 문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벽에 탕 하고 자빠지자 밖을 이리저리 휘우 둘러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나를 즐겁게 하는 산과 능금나무 살구꽃과 감나무 앵두발과 바위가 있을 뿐이었다.

『凶家』³⁷⁾에서

어머니가 시골서 올라오신 뒤 삼 년째가 되어서야 부엌도 있고 방이 세 개나 되는 훌륭한 집을 찻값으로 구했다. 하지만 이 집은 주인을 죽게 한 과거를 가진 집이요, 아내를 미쳐 떠돌게 한 재앙이 깃든 집이었다. '나'는 이 집의 원귀

37) 최정희, <凶家>, 앞의 책, pp.436.443.

에게 머리채를 뜯기는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 집이 없기 때문에 그가 사는 세계는 흉가처럼 재앙을 가진 세계에서 살 수 밖에 없다. 그는 한 시가 급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흉가'에 들어오는 선택을 했지만 두터운 벽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아무래도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포와 부조리의 세계로부터 도피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성문같이 두껍게 잠겼으리라고 생각했던 안방 봉합문이 활짝 열린 것을 알고 미닫이문도 활짝 열게 됨으로써 공포와 부조리의 세계에 과감히 도전한다. 그 도전은 산과 능금나무 살구꽃과 감나무 앵두밭과 바위로 위안을 받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흉가'는 집의 과거와 주인공의 과거 및 현재가 만나는 곳이고 그 만남의 부조화로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 아늑하고 평화로워야 할 공간이 무섭고 고통스런 공간으로 인식됨을 상징한다. 살구나무와 능금나무가 흰 꽃을 피우고 앵두나무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생성의 공간은 어둡고 음산하고 공포가 지배하는 죽음의 시간, 어둠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그는 작가의 신변사를 다루는 여성 소설이 가지기 쉬운 소재의 빈곤을 극복하고 '흉가'라는 서사 공간을 은유적으로 표상화하는데 성공³⁸⁾했다. 서사 공간에 대한 은유는 글자와 정신적 의미간의 거리를 표시하며 그 자체 의미화 기능을 강조하는 문화적 방향설정을 내포한다. 우리는 '언어가 바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외연보다 내포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 문학은 더 이상 거리, 지평선, 우주, 환경, 장소, 지역, 통로들 그리고 근거지에 의한 것 이외에 그 스스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므로 표상적 언어가 저 공간 자체를 차례로 공간화하여 그 자체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⁹⁾고 볼 때 '흉가'라는 언어는 그 자체는 공간을 표상하는 것이다.

최정희 작품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이란 공간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강한 갈증의 발현이다. 그가 서술한 집의 세계는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자궁의 세계와 흉가로 상징되는 비극적 세계가 이원 대립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비극적 세

38) 徐正子, 「최정희 소설 연구 1」, 『원우론총』 4집, 숙대 대학원 원우회, 1986, pp.19-22 참고.

39) A.J. Greimas, 「Metaphor and the New Rhetoric」, Paul Ricœur, *The Rule of Metaphor*, Translated by Robert Czerny,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7, p.146.

계의 근원은 논리 이전의 원초적 공포의 세계다. 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 원초적 비극의 집은 자아 가치를 구현하는 실존적 인식으로 볼 때, 평온한 집-즉 안락한 우주 공간과의 변증법적 논리로서 새로운 구원의 실마리를 찾는다.

5. 結論

以上에서 최정희 초기 소설인 <홍가>, <정적기>에 나타난 구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최정희 소설은 여성적 시각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하나, 본고는 텍스트 내적 표상과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주체'로서의 여성이 어떻게 인간적 구원을 모색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최정희 소설은 '여성다운 고백체'라는 평가와 함께 자서전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교차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서술양식이다. 이것은 공과 내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완성된 틀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그의 삶, 일기, 편지, 소설 등이 거의 서로 경계를 접하면서 동일시되고 있다. 그의 글쓰기는 억압적 현실 폭로와 함께 침묵이나 독백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나 <홍가>, <정적기>에서는 은유, 상징 등의 암시적 언어, 내적 독백이나 심리 서술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와해된 결혼으로 인한 사생아 문제, 여성과 모성의 문제, 여성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문제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피력함으로써, '여성 해방의 이미지 비평'의 한계를 넘어 여성의 인간화 구현을 위한 '여성 중심 비평'의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결혼이란 화려한 통과의례도 거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고 외로운 어머니까지 모시는 女性 家長들로 전통적이고 안정된 정체성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산다. 그러나 이 소외되고 절망적인 삶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인 生애의 애착은 크리스테바의 말대로 '생성적인 주체'다. 그리고 이 주체적 삶은 끝도 보이지 않는 미로에서 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터전이 된다. 그의 소설 주인공들은 언제나 외롭고 슬프고 약한 지질이 못한 여성들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어느 여자보다도 고독을 향유하고 그것을 승화하며 영원한 아름다움을 아는 인간적인 여자들이다.

<홍가>에 나타난 환몽은 무의식과 의식이 만들어내는 가상적 각본이며 그것은 주체를 가두어 놓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의 좌절이요, 원인이며 결과다. 그러나 그러한 환몽을 해체시키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은 파괴적 환몽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의 환상을 열어 주는 강력하고 신비한 힘이다. 그 신비한 힘의 존재가 바로 '어머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궁이라는 주머니가 한 개 더 달린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숙명적인 상실의 고통을 주지만 그것은 오히려 창조와 출구가 되어 강력한 아니무스를 창조한다. 그리고 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원초적 비극은 자아 가치를 구현하는 '집'의 공간- 즉 안락한 우주 공간을 수용함으로써 구원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 공간은 공포와 부조리의 비극적 세계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강한 갈증의 발현이다.

그리하여 최정희 소설 주인공들은 강렬한 아니무스적 고독으로 주체적 삶을 영위하고 료라 공간의 본원적 생명력과 '집'이라는 우주 공간을 포용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거부하기보다는 여성의 절망과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함으로써 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인숙, 「한국 현대 여류 작가론」, 『현대문학』, 1968,1.
- 김문집, 『비평문학』, 청색지사, 1938.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국학자료원, 1992.
- 김윤식, 「인형 의식의 파멸」,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4.
- 김인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담론 연구 -관조적 담론과 텍스트- 실천적 담론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vol 29, No.1. 1995.
- 徐正子, 「최정희 소설 연구 1」, 『원우론총』 4집, 숙대 대학원 원우회, 1986.
- 이재선, 『한국현대 소설사』, 홍성사, 1979.
- 田惠子, 「한국 여류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분석」, 『아세아 여성 연구』 21집, 숙대, 1982.
- 조연현, 「최정희작품해설」, 『한국대표문학전집』, 「최정희, 박화성」, 삼중당, 1971.
- 최정희, <靜寂記>, 『삼천리 문학』, 1938,1.
- 최정희, 「凶家」,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4.
- 崔賢茂,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 『프랑스 현대 비평의 이해』, 김화영 편저, 민음사, 1984.
- A.J. Greimas, 「Metaphor and the New Rhetoric」, Paul Ricoreur, *The Rule of Metaphor*, Translated by Robert Czerny,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7.
- G. Bachelard, 『空間의 詩學』, 郭光秀 譯, 文藝中央, 1980 가을.
- 줄리아 크리스테바, 『사랑의 정신 분석』, 「역자 해설」, 김인환 譯, 민음사, 1999.
- ,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유복렬 譯, 도서출판 푸른숲, 1998.
- Yi-Fu Tunam, 『공간과 장소』, 정영철 역, 테림문화사, 1995

<Abstract>

The Identity of the Salvation Appeared in the Jung-hee Choi's Novel

Hwang Soo-Nam

Junghee Choi is a woman's writer in the 1930', who pursued the woman's social problem. From the actual experiences with the historical rapid transition, she established her own literature. Her literature became the survival means of the miserable life, salvation of the life, and her life itself. She has left over her big footprint in the Korean history of the woman literature by doing that she issued the social problem with the woman's delicate emotion and that suggested the new alternatives without giving up her life from the limit and despair of the human being occurred in the every difficult situation during the sixty years of her long life from 1931 to 1990.

This paper is to present how she can find out the hope of life from the text of the internal image appeared in her early novel of the <Jungjukgi> and <hyongka> in the psychological aspect. Thus, this text is analyzed with 'the mother of the Chora space', 'the loneness of the Animus' and 'discourse's space of the house'.

The <Jungjukgi>, which is her autobiographical novel, describes herself as a female head of a family, who was divorced and was so painful because she never forget her child after her child was sent to the husband's house, and also describes the image of her mother in a piteous way who never had an opportunity of the comfortable living in her life time. Her hateful husband is the symbolic space connected with her father who committed adultery and lived with other woman, and

she, who cries with confession and sing a lullaby to make a child go to sleep, is the Chora space connected with her mother who have patience with self-sacrificing. Therefore, her mother exist in the early space of universe who had not divided into heaven and earth. The story of her novel is extended to the space of meaning by transforming from the Chora space to the Symbolic space. The mother of the Chora's sapce is the miracle existence which makes the potential dissatisfaction to satisfactory.

She went to the jail due to the 2nd arrest of the incident of the KAPF, however, this was the first incident which the woman's writer was arrested. Thus, this affair made her an opportunity to be a well-known woman's writer. After prison, she wrote the novel <Hyingka>, which is the story about that she had to manage the poor house as a woman head of a family. In order to overcome this miserable situation, she tried to catch the Animus. The <Hyongka> describes the internal world of the woman's unique emotion through the symbolical image. This is the space of the pain, fear, death, and darkness, and she desires the comfortable and peaceful space through this image.

The characters of her novel are mostly appeared the lonely, miserable, weak women, but they strive with the subjective life from the strong Animus' loneliness. Finally, she obtained a salvation from the fundamental power of strife in the Chora's space by embracing the entire universe.